

아프리카와 대서양 항만도시의 한국 원양 선원 디아스포라 연구*

-라스팔마스와 다카르의 추모 공간을 중심으로-

진소영
(부산외국어대학교)

1. 서론
2. 연구배경
 - 2.1. 한국의 원양어업
 - 2.2. 라스팔마스
 - 2.3. 다카르
3. 연구방법
4. 사례분석
 - 4.1. 라스팔마스
 - 4.2. 다카르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서양 해양도시인 라스팔마스(Las Palmas)와 다카르(Dakar)에서 한국 원양어업 종사자의 추모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위로하는지를 고찰한다. 본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5S1A6B5A01003729)

연구는 이러한 공간을 단순히 추모의 장소가 아닌 의례와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현장’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산업 근대화에 일조한 한인 원양 선원을 중심으로 다카르와 라스팔마스에 어업 이민 이주에 대한 역사화 작업의 토대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 원양 선원의 이주가 개인의 선택으로 한 국제이주란 점에 착안하여, 이들의 이주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은 무엇이며, 일반적인 한인 이주의 역사와는 다른 이주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첫째, 한국 원양어업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동안 한국 원양 선원의 이주 관련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으며, 한계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둘째, 라스팔마스와 다카르는 어떠한 구조적 환경을 통해 한국 선원의 기념 공간이 되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위령탑, 납골당, 묘역 등의 추모 및 기념 공간은 어떤 언어와 상징을 통해 한국 선원을 기리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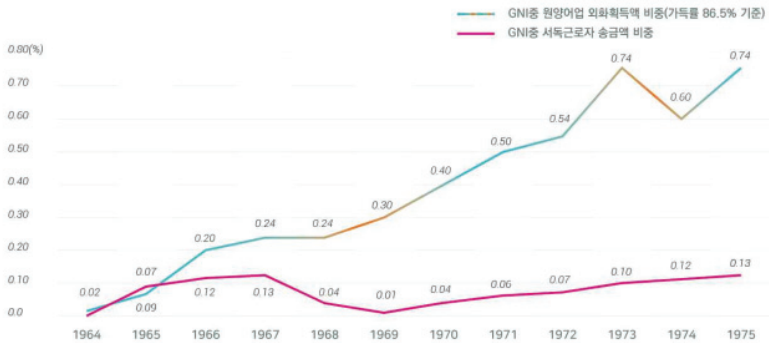
[주제어] 한국 원양어업, 디아스포라, 라스팔마스, 다카르, 추모 공간

1. 서론

오늘도 우리의 밥상에는 국내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멀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등에서 온 수산물이 오르곤 한다. 국민들은 이 수산물들을 소비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어떠한 경로로 우리 밥상에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던 1950년대부터 원양어업을 시작했다(이상고 2006: 91). 1950년대까지는 원양 산업의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산물 수출 종합진흥정책」, 「수산자원 개발계획」, 「수산분야-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수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면서 우리나라 원양어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정명화 외 3인 2017: 3).

특히, 1960-70년대에 원양어업은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한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주현희 2022: 1). 당시 외화벌이에 관한 이야기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의 활동이 국내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서양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던 선원들 또한 분명 한국의 산업 근대화에 필요

한 외화 획득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이성재 2024: 82). 당시의 경제적 기여도를 가리키는 <그림 1>을 보면 원양 선원들이 파독 광부나 간호사보다 더 큰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17: 8)

<그림 1> 원양어업 외화획득액과 파독 근로자의 송금액 비중 비교

그러나 정작 원양어업에 대한 논의는 지극히 제한적이었다. 원양어업의 역사와 그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최민경 2022; 채영희 2022; 송지영 2023; 주현희 2023), 원양 선원의 위상과 그 의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하고 시행되었던 원양어업은 한국전쟁 후 분단과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한국의 외화 획득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과정에서 원양어업 선원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유해는 지금도 여전히 먼 바다와 이국땅에 잠들어 있다.

현재 대서양의 스페인령 라스팔마스(Las Palmas)와 아프리카 세네갈의 다카르(Dakar)에는 원양어업 작업 중에 희생된 선원들의 납골당과 추모 위령탑이 있으며, 이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한국이 존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이주 연구는 오랫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관계로(곽윤경&양

영미 2025; 신지원 2025; 양지민 외 2인 2024; 이예지 2024), 해외에서 형성된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특히, 1960-80년대 한국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던 원양어업 분야에 관한 연구, 특히 상기 지역에서의 연구는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야를 전환하여, 대서양 항만도시에서 형성된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동과 정착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원양어업의 전성기인 1960-80년대와 오늘날로 구분하고 공간적 범위는 라스팔마스의 산 라자로 시립묘지(Cementerio de San Lázaro)와 다카르의 벨레르(Bel Air) 공동묘지로 한정하여 연구를 하고자 한다.

한인 디아스포라에 관한 사료는 한인회 및 공관에서 세대가 교체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비공식 기록이 사라지기 쉽고, 온라인 기사나 SNS 자료는 계정이 폐쇄되는 등의 이유로 소멸 위험 속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 사진과 언론 기록을 즉시 수집하고 보존하여 한국 원양어업의 발전과 역사적 사료로서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연구 질문을 두고자 한다. 첫째, 라스팔마스와 다카르는 어떤 구조적 환경을 통해 한국 선원들의 기념 공간이 되었는가? 둘째, 위령탑·납골당·묘역은 어떠한 언어를 썼고, 또 어떠한 배치를 통해 어떤 기념의 규범과 관여 주체를 구성하는가? 본 고에서는 상기 두 개의 질문을 통해 대서양 해양도시인 라스팔마스와 다카르에서 한국 원양어업 종사자의 추모 공간이 어떻게 기억되는지 고찰함으로써 아프리카 대서양에서 한인들의 활동 상황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작은 기여를 하고자 한다.

2. 연구배경

2.1. 한국의 원양어업

한반도에서 해외로 이주한 역사는 1910년 한일 병합 이후 일본으로

의 대대적 이주가 있고(김형규 2011: 111), 해방 후 6.25 전쟁 발발로 인해 경제발전이 시급했던 한국 정부는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여 외화 획득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였다(최진이 2022: 33). 이 과정에서 1963년부터 1980년까지 독일로 7,900명의 광부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만여 명의 간호사를 파견했다(진현경 2022: 125). 또한, 1960년대~1970년대에는 원양어업의 진출을 통해 대서양으로 이주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진출은 해외 한인회가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채영희 2022: 68). 이와 같은 원양어업은 자국의 산업이 해외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 이주(labor migration)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산업 정책과 개인의 경제적 동기가 결합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전의 해외 이주와는 다른 새로운 이주 양상이라고 하겠다.

해외의 이주 사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어왔다. 특히 해외 이주민들이 자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은 이를 중시하여 오랫동안 국가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해왔다(진소영 2025: 273-274). 한국 정부도 국가 정책과 관심 속에서 해외 동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 대부분은 한인에 대한 존재 및 실태와 현황 연구에 그치고 있다(박준영 2020; 정교진 2022; 최금자 2022; 최현종 2022). 더욱이 한국 원양어업 종사자의 이주, 문화와 정체성 등은 학문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한국 경제가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명받거나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역사적 논의에서 주변화 된 존재로 치부되었기 때문이다.¹⁾

원양어업으로 해외 이주한 한국인의 이주 역사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해외 이주에 관한 연구는 국가 주도의 대표적인 해외 이주 정책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파독 광부 및 간호사에 대한 연구, 고려인과 사할린의 이주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 1960-70년대 한국은 독일과 직접 협정을 맺어 광부와 간호사를 국가 인력 파견으로 보냈기 때문에 근대화 역사에서 국민적 영웅으로 묘사되었다. 반면에 원양어선 선원은 민간 원양어업 회사가 종사자를 고용한 사적 노동형태로 피견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상징 자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 한인 이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뻗어갔다. 이런 의미에서 대서양 아프리카 해외 원양어업의 이주사 연구는 더 이상 ‘주변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중심’의 역사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원양 선원의 이주는 1960년대 경제적 발전 개념에 기초하여 이주와 저개발국가의 경제개발이 구조적으로 작동한다는 관점에서 개발과 국제이주를 ‘연계’(Nexus)²⁾해 볼 수 있다. 한국 원양 선원의 파견은 가난했던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한국 사회에 각인된 부분이 있으나, 해양 노동 디아스포라의 이동-노동-사망과 그 추모 공간을 하나의 체계로 분석한 연구는 희소한 실정이다.

2.2.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는 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최대 도시이다. 라스팔마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스페인 본토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민자들과는 다르게 독특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지역은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곳으로 일찍이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었다. 이곳에는 1960년대부터 원양어업 종사자가 거주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는 약 15,000명의 한국인이 라스팔마스에 거주했으며, 이는 도시 인구 350,000명의 약 4%를 차지했다. 카나리아 제도에 대한민국 영사관이 설립된 것은 한국인 이주민의 중요성과 이 섬에 대한 한국인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부분의 한국인 이주민은 이곳에 가족과 함께 정착하여 자녀들을 지역 학교에 보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한국의 원양어업이 쇠퇴³⁾하면서 종사자 수가 1997년

2) 넥서스는 최근 인문학 담론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교차성(Cross~, and Inter~) 관련 논의를 종합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가로지르고 교차하는 개념과 새로 구축되는 중심 지점이 결합한 것이다. ‘넥서스’는 허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연결(Connect)과 역동성에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상호작용적이고 복합적인 문화의 교차로이자 관계와 연결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형성하는 중심점을 드러낸다(유발 하라리 2024).

3) 1973년과 1977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1977년 주요 연안국들의 200해리 EEZ 선포로 한국 원양어업은 위기를 맞았다. 게다가 1980년대 경제 성장과 민주화운동이 확

2,283명에서 1999년에는 1,292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2011년에는 1,197명으로 감소하였다(라스팔마스 대한민국 영사관 2017년 8월 11일). 남아있는 한국인 이주민은 대부분 어업 이외에 전자제품 판매, 식당, 미용업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⁴⁾

과거보다 한인회의 규모는 작지만, 라스팔마스와 한국과의 외교관계는 현재 진행중에 있다. 2013년에는 라스팔마스 데 그란카나리아 대학교(Universidad de Las Palmas de Gran Canaria)에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MOU를 맺어 해양 및 바다 관련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해양수산개발원-라스팔마스 데 그란 카나리아 대학교 협력 연구 양해각서). 또한, 2013년에 이 대학에 세종학당이 설립되어 한국어 및 한국어 문화 보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재외동포신문 2016).

라스팔마스에는 산 라자로 시립 묘지(Cementerio de San Lázaro)가 있다. 이곳에는 서아프리카 어장에서 조업 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우리 선원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 라스팔마스 공관 소식에 따르면, 이곳에 한국인 선원 위령탑과 납골당이 있어, 한인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인 헌화와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산업 거점이었던 곳이 기억과 의례의 중요 거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3. 다카르

다카르는 세네갈의 수도로 대서양에 접해 있는 항만도시이다. 아프리카의 최서단에 위치해 있어서 대서양 횡단 무역 및 유럽 무역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다카르에 있는 벨레르(Bel-Air) 묘지는 세네갈의 초대 대통령인 레오폴 세다르 상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1906-2001)를 포함한 세네갈의 유명 인사가 묻혀 있는 시립묘지이다(BBC News 2001). 게다가 이곳은 수도에서 대표적인 묘지로 유명 인사를 포함한 군인들에 대한 추모 구역이 공존하는 기억과 추모의 핵심

산되면서 원양어업 선원 지원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김윤미 2021: 367).

4) 연구자가 2025년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라스팔마스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한인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장소이다(Patterson 2022: 5). 이곳에는 중국 동포 2명을 포함해 16명의 한인이 묻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원양어선 선원들로 조업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나 병 등으로 사망했다(연합뉴스 2009). 벨레르 묘지의 역사와 성격을 고려하면, 한국인 묘역이 있는 것은 기념 문화의 맥락 속에 나란히 배치되기도 한다. 2015년 2월 22일과 2016년 2월 7일, 세네갈 한인회의 주관으로 무연고 한국인 선원 16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거행되었는데(주세네갈 대한민국 대사관), 물론 정량적으로는 작은 집단이지만 한국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념과 추모가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주변부의 아프리카를 한국인의 관점에서 조망해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라스팔마스의 산라자로 시립묘지에 있는 한국인 선원 위령탑 및 납골당과 다카르의 벨레르에 있는 한국인 선원 묘지로 연구 범위를 한정한다. 연구자는 2025년 8월 라스팔마스에 방문하여 직접 사진을 확보하고 현지 한인회와 인터뷰를 수행했다. 다카르의 경우 현지 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관계로 기존에 공개된 이미지와 문헌 자료에 의존하였다.⁵⁾ 두 장소 간 자료 비대칭을 고려하여 라스팔마스는 심층 서술, 다카르는 일부 한인 및 소수 이미지 기반의 미시 분석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프랑스 학자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 1901~1991)의 공간 삼분법을 통해서 추모 공간을 공간적 실천(접근성, 동선 등), 공간의 재현(명칭, 이름 표식 방법 등), 재현 공간(상징, 텍스트, 배치)으로 분석한다. 그의 연구에 대한 공과가 있고, 한계(정보화 네트워크, 젠더, 인종 등)가 있지만 적어도 한인 원양 어선이 적극 진출한 시

5) 세네갈 현지 조사를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인 묘지를 참배하지 못했을 뿐, 원양 어업 종사자였던 현지 한인(한인 식당 운영)과 대사관을 통해 두 명의 공동 연구자는 현지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내용을 수집할 수가 있었다.

기의 연구 지역을 고려한다면 그의 분석은 어느 정도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르페브르는 공간(Space)이란 원래 존재하는 것도, 또 저절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라는 ‘공간의 생산(production of space)’ 개념을 주장했다(전상인 2019: 22). 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일상의 관계들로 얽혀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이다. 르페브르는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 ‘공간의 재현(representations of space)’, ‘재현 공간(representational space)’이라는 삼분법으로 공간을 사회적 산물(the produced social space)이라고 정의한다(Lefebvre 2012: 81-84).

공간적 실천은 사람들이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통해 공간을 물리적으로 생산하고 전유하는 작용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반복하는 행동 양식들이 쌓여 사회관계가 공간과 상호작용 하는 것을 뜻한다(Lefebvre 2012: 33, 38-39, 41-42). 그리고 공간의 재현이란 개념화된 공간을 뜻하며 과학자, 도시계획가, 공무원, 사회공학자들의 계획에 따른 개념화된 공간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현 공간은 공간과 연결된 이미지와 상징을 통해서 직접 체험된 공간으로 거주자들의 공간이며, 이용자들의 공간이다(Lefebvre 2012: 33, 39, 41-43).

본 연구는 라스팔마스과 다카르에 있는 추모 공간을 르페브르의 삼분법에 따라 공간적 실천, 공간의 재현, 재현 공간을 통해 추모 공간을 분석한다. 연구자는 라스팔마스에서 한국인 선원 추모 공간을 직접 관찰했으나, 다카르는 일부 한인의 인터뷰와 자료 의존이라는 연구 대상의 비대칭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결과 해석에 비대칭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4. 사례분석

해양수산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스페인의 라스팔마스과 테네리페, 사모아 등 7개 나라에 318기 묘지를 안장해

왔다. 2014년부터는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현지 정부와 협의해 원양어 선원 유골을 국내로 옮겨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KBS 뉴스 2018).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 선원 유해 국내 이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래의 자료들은 라스팔마스과 다카르에 있는 추모 공간으로, 공관과 한인회를 주도로 한 묘지 참배와 같은 의례로 한국인 선원에 대한 위로와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4.1. 라스팔마스

〈그림 2〉는 위령탑과 납골당의 전면 사진으로 한글 표식과 전통 기와 지붕을 통해 한국적 표식을 시각화하고 있다. 좌우 입구 기둥에는 각각 위령탑(1978년 9월 30일 준공)과 납골당(2002년 11월 26일 준공)이 표기되어 기념 공간이자 봉안 시설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앙 비석에는 현재 기념탑(慰靈塔)이라고 한자로 새겨져 있지만, 향후 한글 교체로 논의 중에 있음을 현지 한인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받았다. 기념탑 아래와 안치단에는 꽃장식이 놓여있으며, 각 안치단마다 통일된 규격과 서체로 소속 선사, 성명, 사망 연월을 표기하고 있다. 이는 정기적인 관리와 추모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3〉은 위령탑과 납골당 입구 좌측에 있는 안내석으로 한국어와 현지어(스페인어)로 조성 경위와 연혁, 관리자(스페인 라스팔마스 한인회), 주관자(한국해양수산부, 한국 원양산업협회)가 병기되어 있다. 두 언어가 병기된 안내석은 기념 시설의 법·행정적 정체성을 내포하며 양국가-산업-디아스포라가 얽힌 다층적인 측면을 묘사하고 있다.



* 출처: 연구자 직접 촬영 2025년 8월 5일

〈그림 2〉 위령탑·납골당 전경



〈그림 3〉 위령탑·납골당 안내석

안내석 옆에는 박목월 시인의 〈헌사〉 동판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다로 뻗으려는 겨레의 꿈을 안고 오대양을 누비며 새 어장을 개척하고 겨레의 풍요한 내일을 위하여 헌신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 허망함이며 그들은 땅끝 망망대해 파도 속에서 자취 없이 사라져 갔지만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줄기차게 전진하는 조국 근대화와 겨레의 번영 속에 그들의 숭고한 열과 의지는 살아 있으며 수산 한국의 무궁한 발전 속에 그들은 영원히 쉬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의 영을 위로하기 위하여 지역의 태양과 성좌 아래 정성을 모아 이 탑을 세우나니 위대한 개척자의 영이여 보람찬 겨레의 핏줄이여 이곳에 편히 깃드소서

1978. 9. 30 박 목 월

박목월의 〈헌사〉는 추모 공간을 언어로 응축된 재현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오대양, 개척, 근대화, 번영’이라는 어휘를 통해서는 국가-산업 담론을 형성하여 이들의 희생을 ‘국가 산업에 대한 서사(敍事)’로 표상하고 있으며,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이들에 대한 기억을 한인공동체에 녹아내고 있다. 아울러 “이 탑을 세우나니”라는 표현은 이 공간이 추모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해당 연표가 현장에서의 현화와 추모식이 결합될 때, 이곳은 ‘국가산업-추모-

의례'가 하나로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박목월의 〈헌사〉는 추모 공간에 '국가 근대화 담론-원양어업 노동-디아스포라'의 장소성(場所性)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4.2. 다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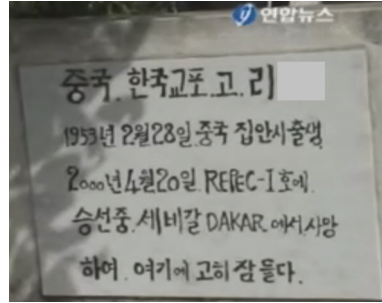
아래 〈그림 4〉는 대리석 명판에 한글 비문으로 “청운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이역만리 이곳에 잠들다”와 성명, 출생 연도 및 사망일이 병기되어 있다. 비교적 젊은 32세의 청년의 묘비에는 ‘이역만리’라는 표현으로 타국에서 외로이 어업에 종사하다 사망했음을 뜻한다. 게다가 명판 하부의 텅굴과 낙엽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점은 세네갈 한인사회에서 원양어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추축을 이룬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 5〉는 백색 판재에 손글씨로 “중국 한국교포 고 리○○ / 1953년 2월 28일 중국 집안시 출생 / 2000년 4월 20일 REPEC-1호에 승선 중 세네갈 DAKAR에서 사망하여 여기에 고히 잠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선박명과 지명은 영문자 대문자로 병기되어 있으며, 항만, 기관, 국제방문자에게 기본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 기록은 중국 한국교포 → 한국 선박 → 세네갈 다카르로 이어지는 다중 디아스포라를 의미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애가 초국가적 이동-노동-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승선 중 사망’이라는 표기는 개인사(死)가 아닌 해양 노동사로 연결하고 있다. 이런 점은 상술했듯이 라스팔마스의 한인사회 역사와는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다.



* 사진 출처: 연합뉴스(2009년 10월 4일)

〈그림 4〉 다카르 벨레르 묘지①



〈그림 5〉 다카르 벨레르 묘지②

라스팔마스의 추모 공간은 위령탑, 납골당, 안내석의 연혁이 표기되어 있으며, 안내석에는 해양수산부, 한국원양산업협회, 라스팔마스 한인회가 관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안치단에는 소속 선사를 표기하여 산업 노동 정체성을 나타낸다. 또한, 현화를 통해 정례 의식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다카르의 추모 공간은 기관 표식이나 연혁 등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현화 없이 덩굴과 낙엽만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단위로 추모 공간 기능을 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카르의 묘지는 과거 원양어업에서 근무 중 순직한 선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구조물이지만, 현재 안내 표지나 유지관리 체계가 미비하여 공동체적 기억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이는 추모 공간의 관리 체계, 공동체의 추모 행위의 실천 여부에 따라 기억 공간으로서의 지속성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라스팔마스의 추모 공간은 국가기관과 한인회가 협력·조성하여 지금까지도 관리와 활용이 제도화되어있는 반면, 다카르의 경우에는 미흡하다. 이는 추모 공간이 단지 물리적 존재로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성화하고 제도적 뒷받침(한인사회, 한글학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라스팔마스의 추모 공간은 공간적 실천(현화, 참배), 공간의 재현(안내석), 재현 공간(현사, 상징)을 통해서 기억의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다카르는 공간의 재현을 의미하는 제도적 관리가 비교적 약하지만 “고히 잠들다”와 같은 애도의 표현과 ‘중국 한국교포-REPEC 1-DAKAR’의 정체성, 선박명, 사망 장소 등의 정보를 통해 미시적 재현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르페브르의 개념을 바탕으로 라스팔마스과 다카르의 추모 공간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라스팔마스-다카르 추모 공간 비교

항목	라스팔마스	다카르
제도/ 거버넌스 (C)	위령탑(1978), 납골당(2002), 안 내석(2013) 연혁 명시, 한인회·해수부·원양산업협회 표기, 안치단에 대한 통일성 강함	기관, 연혁 표식 부재, 수기 서체, 묘비 통일성 약함
언어표기 (C/L)	한국어-스페인어(현지어) 병기, 중앙 표식(慰靈塔) 향후 한글 전환 논의 중	한국어-영어 병기, 현지어(프랑스어, 월로프어) 부재
상징 (L)	박목월 〈헌사〉, 선박회사 병기=노동 정체성	이역만리/고히 잠들다와 같은 애도 표현, 중국 한국 교포=다중 디아스포라, 선박회사 병기=노동 정체성
관례 (P)	헌화, 주기적 참배 = 정례 의례	헌화 부재 = 간헐적 관리
데이터화 용이성 (C)	안치단마다 선박사/성명/사망 연월 체계적 표기=데이터화 용이성 강함	핵심 항목 산발적 표기(선박명, 출생·사망 시기)=미시 사례 축적형
지속가능성 (P)	강함(관리 체계 존재)	약함
종합분석	추모 공간(C-P-L 강함)	미시적 재현 공간(L중심, C·P 약함)

* 공간적 실천= P, 공간의 재현= C, 재현 공간= L⁶⁾

6) 이니셜 C, P, L은 르페브르가 삼분법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보조 구분 방식이다. Conceived-Perceived-Lived(개념화된-지각된-살고 있는 공간)에서 알파벳을 차용했다.

5. 결론

한국인 선원을 위한 라스팔마스의 위령탑과 납골당과 다카르의 묘지는 산업재해 희생자에 대한 기억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 왔다. 이들 공간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을 상징화하고, 반복되는 의례와 공동체 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지역 공동체 정체성 재구성을 실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라스팔마스와 다카르 사례는 동일한 해양산업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상이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다카르에는 한국인 선원 묘지가 최소 16기로 파악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2기만을 분석하여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 개념으로 추모 공간을 제도-실천-상징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각 추모 공간에 얽힌 개별 공간과 참여자들의 기억과 같은 미시적 해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아울러 추모 공간을 '장소 내부'에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장소를 넘어 발생하는 흐름과 연결을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원양 선원 추모 공간의 형성과 유지에는 이동-해상 사망 발생-선박회사, 선적국, 항만국 당국의 조사-유해 이송 또는 현지 매장과 같은 초국가적 흐름은 'C-P-I'로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세네갈에서 한인사회의 역사, 원양어업의 위상, 심지어 북한과의 관계 교류 양상, 이데올로기, 서아프리카 타 지역과의 연결망까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⁷⁾ 이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르페브르의 삼분법을 통한 연구 방식을 넘어 더 복잡한 행위자와 비행위자를 포함한 네트워크의 관계망⁸⁾으로 서아프리카 원양어업의 역사와 현재까지를 미시적으로 연구

7) 세네갈은 한국과 외교 관계를 1962년 맺었으며, 북한과는 1972년 수교 관계를 맺어 왔다. 서방 국가에 우호적인 점이 고려되었지만 당시 제삼세계 국가의 일원임을 중시했던 초대 대통령 레오폴드 생고르의 전략적 선택이기도 했다.

8) 흔히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가 제시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브뤼노 라투르 2024). 이 이론은 인간 중심의 사회 설명에서 비인간적인 요소까지를 포함 한 모든 행위자를 포함하여 디아스포라를 연구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더 구체화하여 서아프리카 원양어업의 역사, 나아가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동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곽윤경·양영미(2025). 한국 성인이 지각한 사회적 자본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관계: 이주노동자, 난민, 재외동포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 45(3), 126-146쪽.
- 김윤미(2021). 원양어업 선원들의 경험을 통해 본 해역세계,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5, 361-389쪽
- 김형규(2011). 일제 식민화 초기 서사에 나타난 해외이주 형상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46, 101-134쪽.
- 김환석(2024). 브뤼노 라투르,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준영(2020). 재외 한인 이주 사회 여성 주체의 등장: 인도네시아 한인 여성 활동가 모빌리티 차별, 네트워크 자본 배제 극복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2), 107-141쪽.
- 박희권(2016). [기고] 카나리아 군도 한인 진출 50주년을 기리며 Consulado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Las Palmas, <https://Consulado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Las Palmas>(검색일: 2025.09.15.).
- 송지영(2023). 정부 문서자료를 통해 본 1970~1980년대 아르헨티나 어업이민의 송출 과정과 특징, 〈한국민족문화〉, 84, 171-200쪽.
- 신지원(2025). 송출국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이주 노동자 수용 제도의 문제점: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8(2), 211-231쪽.
- 양지민·박경아·정재원(2024). 한국문화 부적응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결혼만족도 향상 소집단미술치료 사례연구, 〈교정상담학연구〉 9(1), 85-121쪽.
- 연합뉴스(2009). 세네갈 교민들의 특별한 추석성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896746?sid=104>(검색일: 2025.09.15.).
- _____ (2009). 세네갈 교민들의 특별한 추석성묘, <https://www.yna.co.kr/view/AKR20091004007800102>(검색일: 2025.09.16.).

- 유발 하라리(2024). 넥서스: 석기시대부터 AI 까지, 정보 네트워크로 보는 인류 역사, 김영사.
- 이상고(2006). 원양어업의 경영구조적 문제와 글로벌 발전모델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18(2), 85-97쪽.
- 이성재(2024). 원양어선 해기사 부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 필요, <월간 현대해양>, 80-82쪽.
- 이예지(2024). 한베 노동시장에서 졸업 유학생의 초국적 경계 넘기: 베트남 유학생의 유학-취업-귀환-한국 재이주-정주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7, 213-270쪽.
- 전상인(2019). 공간으로 세상 읽기: 집·터·길의 인문사회학, 세창출판사.
- 정교진(2022). 재중 한국교민사회 형성 및 기독교 역할: 선양 교민사회와 '심양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7(3), 27-54쪽.
- 정명화·이지은·이동림·김세연·오서연(2017). Kmi 동향분석 제32호 - 60돌 맞은 원양산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세네갈대사관(2015). 세네갈 한인 무연고 선원묘지 참배, https://overseas.mofa.go.kr/sn-ko/brd/m_10179/view.do?seq=113361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검색일: 2025.09.18.).
- 주현희(2022).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가기구의 재편-해무청의 해체와 수산청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7-33쪽.
- _____ (2023). 한국 원양어업의 발전과 국가기구의 재편-해무청의 해체와 수산청 창설 과정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24(1), 1-2쪽.
- 진소영(2025). 리더야 디아스포라의 테랑가 (Teranga) 실천에 관한 연구—종교적 현대, 의례적 송금,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가족과 커뮤니티> 12, 267-284쪽.
- 진현경(2022).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5(1), 115-146쪽.
- 채영희(2022). 원양산업 구술기록으로 보는 원양 어장 개척사, <학술총서>, 66-81쪽.
- 최금좌(2022). 쿠바 한인 후손들의 민족적 정체성 변화: 이민 100 주년 기념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중남미연구> 41(1), 129-172쪽.
- 최민경(2022). 어업이민을 통한 해방 후 해외이주정책의 이해, <인문과학연구> 75, 229-250쪽.
- 최진이(2022). 선원의 해외진출 60 년, 그 성과평가와 예우방안 연구,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7, 31-56쪽.
- 최현종(2022). 해외 한인공동체의 형성과 기독교: 구 소련 지역을 중심으로, <Asian

-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10(2), 113-148쪽.
- KBS뉴스(2018). 원앙어선 선원 유골 5위 4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669853&ref=A>(검색일: 2025.09.18.).
- BBC News.(2001). Senegal's senghor laid to rest. Retrieved from <http://news.bbc.co.uk/2/hi/africa/1733677.stm>(검색일: 2025.09.14.).
- Consulado de la República de Corea en Las Palmas.(2017). Datos sobre la comunidad coreana en canarias. Retrieved from https://overseas.mofa.go.kr/es-las-es/brd/m_7284/view.do?seq=756526&utm_source=chatgpt.com(검색일: 2025.09.08.).
- Lefebvre, H.(2012). From the production of space. Theatre and performance design, Routledge.
- Patterson, J. R.(2022). City profile: Dakar. World Literature Today, 96(1), p.5.
- Valdés, C. D.(2015). “La migración coreana en yucatán. procesos de integración y movilidad social y geográfica”. Iberoamerica, 17(2), 203-234.

필자 소개

성 명 진소영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이주다문화연구소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
전자우편 jsy13907@naver.com

| Abstract

Spaces of a Korean Maritime Diaspora - A Comparative Study of Las Palmas and Dakar -

Jin, So-you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amines how memorial spaces for Korean deep-sea fishermen are remembered and commemorated in the Atlantic maritime cities of Las Palmas and Dakar. This study analyzes these spaces not simply as places of remembrance, but as “sites where regional identity is reconstructed” through rituals and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this, it aims to historicize the fishing migration of Korean deep-sea fishermen to Dakar and Las Palma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migration of Korean deep-sea fishermen was a personal choice during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ir mig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migration that distinguish them from the general history of Korean migration. To this end,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history of Korean deep-sea fisheries and analyzes how research on the migration of Korean deep-sea fishermen has progressed, as well as its limitations and challenges. Second, it examines the structural environment that shaped Las Palmas and Dakar as memorial spaces for Korean fishermen. Third, we will examine the language and symbols used in memorial and commemorative spaces such as cenotaphs, columbariums, and cemeteries to honor Korean sailors.

[Key words] Korean deep-sea fisheries, diaspora, Las Palmas, Dakar, memorial spaces

투고일 2025. 10. 12 / 심사일 2025. 11. 13 / 게재확정일 2025. 11. 13

